

## News

### KB 전세대출 문턱 높이자 타행에 '우르르'… "분할상환 확산 불가피"

뉴스1

KB국민은행의 전세대출 분할상환 의무화로 부담을 느낀 대출자들의 타 은행 이동 풍선효과 조짐 나타나… 전세대출 분할상환의 은행권 확산 불가피하다는 관측  
국민은행의 전세대출 잔액 15일 기준 26조 3,434억원으로 지난 2주간 80억원 증가… 타행에서는 불과 2주만에 1,400억~4,300억원 증가

### 케이뱅크, 우대금리 폐지…고신용자 역차별 논란

데일리안

케이뱅크,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에 제공되던 급여이체우대금리 일괄 폐지… 고신용자 대출 규모 줄이기 위한 목적

금융당국의 중금리대출 비중 목표에 아직 미달…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금리는 1.5~2.3%p 인하한 반면, 고신용자 대상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3.38~9.53%로 상승

### 고승범 "시중銀 폭리 논란은 오해… 기준금리 등 인상 영향"

파이낸셜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 최근 은행의 폭리 논란에 대해 "오해가 있다"고 쌈기… 기준금리인상이 영향을 미쳐 시장금리가 크게 오른 것이라 언급  
"지금은 부채 레버리지를 정상화해서 부채 규모를 줄여나가야 한다" 강조

### 은행권, 연말 구조조정 칼바람…하나·NH농협銀 내달 명퇴

데일리안

은행권, 연말에도 감원 한파가 지속될 전망… 특히 올해는 가계대출 급증과 금리 상승에 따른 예대마진 확대 등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만큼, 희망퇴직 규모도 역대급일 것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다음달 희망퇴직 신청 받을 예정… 사측은 업무 효율성 극대화, 일부 직원들은 퇴직금 조건 나쁘지 않아 수요가 맞아떨어진 결과

### '상장'카드 꺼낸 교보생명…3년만에 IPO 재추진

이데일리

교보생명, 내년 상반기 중 IPO 완료한다는 계획… 주관사는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크레딧스위스, JP모건, 씨티  
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과의 갈등을 한번에 해소하기 위함으로 해석… 신창재 회장에게 건 가압류도 풀 수 있는 상황 가능

### 카카오페이지 "금융이력 부족자 위한 여신서비스 곧 선보일 것"

연합인포맥스

카카오페이지, 자체 구축한 대안 신용평가모델 활용해 금융이력부족자를 위한 여신 서비스 출시 예정  
이르면 연내 주식거래 서비스·디지털 보험서비스·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시할 계획

### 금감원, 증권사 신기술조합 칼뽑았다 내달 1일부터 금소법 적용

머니S

금융당국,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투자 권유 증권사 대상으로 내부통제 마련하라는 행정지도 명령  
그동안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증권사의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이행 의무 부재… 행정지도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내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 소액 투자자도 PB 자산관리 서비스 받는다

서울신문

증권사들, 투자 경험이 비교적 적은 2030 세대 겨냥해 비대면 PB서비스 출시… 올 3분기 기준 5,245만개의 주식거래 활동계좌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기반한 인공지능 PB역할하면서 로보어드바이저도 인기…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은 2017년 이후 4년간 100배 이상 성장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